

2014. 11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2014년 11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4.11.25	대전MBC 대회의실	9/10	7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박희원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김창옥 사장, 김미리 경영기술국장,
오승용 편성제작국장, 최혁재 보도국장, 차태헌 방송기술센터장,
신원식 창사50주년 기획단장, 우경수 경영심의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7	11	-	-	18	-	18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0	8	-	18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9건	9건	10월
교양	토크 프로그램 스튜디오 탈피	토크 프로그램 야외에서 진행	10월
교양	TV특강 프로그램 강사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사람으로 섭외	TV특강 강사 섭외 시청자의 관심 있는 인사를 섭외	10월
교양	시사 프로그램에서 공감대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템으로	시사 프로그램(시사플러스)에서 시청자와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 발굴 제작	10월
보도	시사 토론 프로그램 어려운 용어 자막 활용	시사 토론프로그램(시사광장) 어려운 용어 자막 활용함	10월
교양	창사 50주년 관련 특집 프로그램 홍보 강화	창사 50주년 특집 프로그램 자체PR, 온라인 PR, 지역언론 PR 등 강화함	10월
교양	프로그램에서 외래어 사용 자제	프로그램에 외래어 사용 자제함	10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테마기행 길)에서 해외제작으로 또 다른 재미를	해외제작의 현장감 있는 내용으로 시청자에게 즐거운 정보 제공	10월
보도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 시청자층에 맞게 공들여 제작	보도 특집 다큐멘터리(햇살이의 꿈) 시청자층 눈높이에 맞게 제작	10월
보도	창사50주년 특별대토론에서 제기된 우리지역 이슈를 뉴스에서 지속적으로 다루어지길	대토론 프로그램의 주요 이슈를 정규 뉴스 프로그램에서 계속 다루고 있음	10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해당사항 없음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변동사유
위원장	오덕성	충남대 부총장 세계과학도시연합사무총장	한국도시 행정학회	과학기술단체	위촉
부위원장	김학선	전 대전MBC 편성국장	대전충남 아나운서협회	언론단체	위촉
위원	장백기	세종종합사회복지관장	한국청소년 진흥재단	청소년단체	위촉
위원	성정모	변호사	대전지방 변호사회	변호사단체	위촉
위원	박희원	대전충남 경영자총협회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위원장해촉 위원 유임
위원	한찬희	전 세계인삼엑스포 사무총장 현 (재)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감사	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명수	전 표준과학연구원장 현 표준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사)대덕클럽	과학기술단체	위원 유임
위원	유덕순	전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현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보호 단체	위원 유임
위원	김형주	배재대 연극영화학과 교수	한국영화 교육학회	문화단체	위원 유임
위원	송인덕	전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현 중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이버커뮤니케 이션 학회	언론단체	위원 유임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11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p>테마기행 길 「천년의 유산 제주 원도심 옛길 여행」 편(11월 18일)을 시청하였다. 이번 테마기행 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유명 제주도 관광지가 아닌 제주 원도심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과 옛길, 중심상권을 소개해 주는 새로운 시간이었다. 전문 리포터가 아닌 제주도 사투리로 노래하는 밴드 멤버들을 리포터로 내세워 참신한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진행의 매끄러움이 부족해 보일 수 있었으나 젊은이들의 문화나 음악을 소개할 때는 전문성이 돋보였다. 또한 원도심에서 생활하는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경쾌한 음악과 함께한 성우의 노래이션은 제주 원도심 문화유산의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주었다. 특히 각종 문화·예술 요소들을 중심으로 제주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상점, 게스트하우스, 카페 등을 도시재생의 측면으로 소개하였다는 것 역시 기존 방송과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오덕성).</p>	<p><테마기행 길>은 지역MBC 공동제작 프로그램으로 이번 편은 제주MBC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이다. 대전도 원도심 활성화 문제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테마기행 길>이 꾸준하게 시청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 「끝나지 않은 참사, 가슴기살균제 / 7시간의 온기, 연탄」 (11월 21일) 편에서는 2011년 영유아와 임산부 등의 목숨을 앗아간 가슴기 살균제의 사건, 이 후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힘겨운 시간과 최근 다시 바빠지고 있는 연탄공장이 마냥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p> <p>시사플러스에서는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와 사망자 가족들의 인터뷰를 통해 책임자 규명과 여러 사회보호단체들의 인터뷰를 통하여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의 억울한 심경과 답답한 정부의 대체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었다. 다만 정부의 형편없는 제도와 법률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었으나, 정부의 대책 마련과 노력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았다.</p> <p>또한 최근 들어 난방비 절감을 위해 연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다시 바빠지게 된 연탄공장의 하루를 돌아보았다. 연탄을 필</p>	<p><가슴기 살균제>의 경우, 사고 발생 이후 관련기관 등의 미온적인 대처로 잊혀져 가는 사건사고로,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잊혀지는 이슈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시작된 아이템이다. 지적하신 대로 관계기관의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작진이 해결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였으나, 어떠한 방법의 해결책을 제시할 경우, 일부 시각에 따라서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정부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방적인 소비자들의 이야기만을 담는다는 극단적인 평가가 제기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으며, 해결책에 대한 부분은 방송에서 큰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적극적인 방법제시까지는 형평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판단으로 지극히 세부적인 해결방법 제</p>	○		

	<p>요로 하는 사람들의 계층은 사회빈곤층이 많은데 연탄 가격의 인상은 더욱 그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다. 연탄 한 장으로 7시간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게 우리 사회는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두 번째 주제는 방송 말미에 적은 분량으로 방송되어 아쉬움이 많이 남는 방송이다(오덕성).</p>	<p>시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였다.</p>		
<p>교양</p>	<p>건강플러스 「심장건강 / 성장기 교정치료」 편(11월 21일)에서는 심장건강과 성장기 치아 교정치료에 관하여 방송하였다. 먼저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심장은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질환인 심장병으로 예기치 않은 죽음으로 현대인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에 ‘맛있는 처방전’에서는 ‘심장건강’에 좋은 음식을 소개하고 현미, 두부, 연어를 통한 요리를 하는 시간이었다. 먼저 한의사의 전문적인 인터뷰를 통해 심장건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었고, 위 식품으로 직접 조리하는 방법과 음식을 소개시켜 주면서 시청자들의 미각을 자극하였다. 요리법을 소개하는 중간에 조리학과 교수가 식품이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시청자들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p> <p>‘TV주치의’에서는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교정치료의 방법과 시기의 중요성에 관해 치과 교정 전문의가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진행자의 질문형식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성장기 치아 교정치료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화면과 사진화면을 통해 아나운서의 질문에 대한 응답과 동시에 시청자들이 궁금증 풀어주었다. 또한 영상자료를 통해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인터뷰를 통해 들어보고 실제 치료방법과 과정을 보여주어 이해가 쉽도록 하였다.</p> <p>아나운서의 질문은 실제로 시청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고, 실제로 궁금하게 생각되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적절하였으며, 전문의의 적절하고 자세한 대답은 시청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오덕성).</p>	<p>건강플러스는 40대 이상의 성인층을 주 시청층으로 두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제작에 있어서도 화려한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다.</p> <p>시청들에게 보다 친밀하게 다가서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p>	
<p>보도</p>	<p>시사광장(11월 23일) “대전- 세종 상생발전 가능한가?”을 시청하였다. 패널로 대전시 기획실장, 세종시 도시국장과 충남대의 도시행정 전문가를 섭외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을 보니 행복청 관계자도 참여시켰으면 더욱 유익한 토론이 되었</p>	<p>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시켜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유도하는 순기능을 기대했으나 중앙부처 공무원과 관련 기관 및 산업의 이전 지연으로 대전과 충남 등 지역 인구가 세종시로</p>	<p>○</p>	

	<p>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대전시의 인구 감소에 대한 이슈가 세종시로의 이전으로 인한 것으로 기인되는데,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체계가 미흡하다. 대전은 교통도시와 과학도시로서 확장 발전되어 왔으나, 최근 그 기능이 분산되어(호남선 분기점, 특구 지정 등)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 세종시는 당초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국가주도로 추진된 도시이나, 아직 까지 자족기능 부족하여 공무원, 이전기관 등 수도권 인구유입이 미흡하므로 당초 목표를 달성 위한 대책 필요하다고 본다. 토론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 지지 않아 아쉽다. 전체적으로는 세종시 의 기능정립과 충청권 상생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게 다루어진 주제로 판단된다(김명수).</p>	<p>흡수되는 현상이 심화돼 지역민들이 당황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 건설의 근본적인 취지를 다시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획한 토론이었다. 대전의 인구감소는 세종시의 빨대효과로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인근 지역의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대전세종충남지역의 공동상생발전을 위한 방안과 과제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토론하도록 했다. 세종시 건설의 지연 또는 자족성 확보 미흡 등에 대해서는 이전에 몇 차례 토론을 통해 짚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p>		
<p>교양</p>	<p>특집프로그램 : 창사50주년 다큐멘터리 총칭 (4부작) 중, 1부(11/10) “생명의 바다 서해” 2부(11/17)“ 천리 비단내 금강”편을 시청하였다.</p> <p>창사 50주년 특집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충청권의 바다, 강, 산과 들을 구석구석 돌아보며, 자연과 생활,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는 우수한 내용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유익한 방송이었다. 특히 4주간 월요일 밤 11시 같은 시간대에 방영하므로 시청자들이 관심을 갖고 다음 편을 시청할 수 있으며, 3부 내포와 4부 계룡산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p> <p>현장 답사와 취재를 위해 캐스팅된 남영렬 배우는 프로그램 자막에 이름 외에는 별도로 소개된 내용이 없어 누구인가 궁금했는데, 11/8에 방영된 “토크앤 조이”를 통해 대전출신의 텔런트이자 연극배우임을 알게 되었다. 의도했던 방송편성 순서이었던지는 모르지만, 특집프로그램의 방영전에 이러한 배치를 한 것은 시청자들을 위해 좋은 선정이라고 평가된다.</p> <p>현장 답사자의 인상도 튀지 않는 서민적 이미지로 다큐 총칭에 적절한 것 같으며, 차분한 내레이션 또한 늦은 시간대의 방송에 적절한 아나운서를 선정하여 시청자에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즐기게 하였다.</p> <p>1부 서해편에서는 충청의 생명의 보고로서 어부와 염전을 시작으로 서해의 각 섬을 돌아보며 섬들의 명칭에 대한 설명을 곁들여 시청자들이 섬의 명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다.</p>	<p>대전, 세종, 충남을 아우르는 방송사로서 대전MBC는 지난 세월동안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우리 문화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왔다. 반백년의 시간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충남 지역의 문화와 자연의 원형을 기록하고자 <다큐멘터리 총칭>을 기획하였다.</p> <p>백제와 유교문화로 대표되는 부여와 공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조명되었던 내포 지역 등을 취재하였다. 이를 통해 충청 문화의 원형인 개방성과 진취성을 조명해보았다. 또한 태안 유류피해사고로 큰 아픔을 겪은 태안을 비롯한 충남 서해안의 다양한 식생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들여다보고, 예로부터 생명의 강이자 소통의 강이었던 금강의 현재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마지막으로 한국 4대 명산 중 하나로 손꼽히는 계룡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 자연의 속 모습을 들여다본다. 이를 4부작으로 전개하였다.</p> <p>즉, 제1부 : 살아 숨쉬는 서해안(西海岸) 제2부 : 천리 비단내 금강(錦江) 제3부 : 충청 문화의 원형 내포(內浦) 제4부 : 천년의 기다림 계룡산(鷄龍山) 로 매주 월요일에 편성 방송하였다.</p> <p>제1부<살아 숨쉬는 서해안(西海岸)>에서는 풍부한 수산물과 두웅습지와 운여해안 등 자연 그대로의 생태 환경을 자랑하는 서해안. 유류 사고라는 아픔과</p>	<p>○</p>	

	<p>(웅도, 격렬비열도 등) 충청 서해의 구석 구석을 돌아보며(무창포, 청포대, 안면도, 외연도, 가로림만, 서천, 대천항 등), 지역의 특징 소개는 물론 현지인들과의 대담을 통해 생활 현장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제작진의 시도는 시청자들에게 매우 유익하고 친근감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p> <p>서해안의 큰 이슈중 하나였던 2007년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다름으로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변모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좋은 마무리였다.</p> <p>2부 금강편에서는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내용으로 기대를 갖고 시청하였다. 천리(400 km)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을 도입부에 잠깐 비쳤으나, 추가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 장소가 전북 장수이기는 하지만 금강의 발원지로 많은 시청자들이 모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번 기회에 소개하였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금강변의 공산성을 통해 한성백제로 부터의 웅진백제로의 변화의 역사를 소개하였고, 구드레 나루터를 통해 해상실크로드의 기점으로 중국과의 해상교류를 주도하였던 백제의 융성한 경제와 문화를 돌아게 함 금강의 명칭이 지역에 따라 적벽강(금산군 수리면), 백마강(부여) 등으로 다르게 불리는데, 기록에 의하면 삼국시대에는 공주 유역은 웅천, 부여 유역은 사비하로 불리다가 고려말에 전체적으로 금강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함 마무리로 신성리 갈대밭과 금강하구연을 소개하며 자연의 정화능력과 금강보호를 강조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늘 함께 해야 한다’는 좋은 메시지를 던졌다(김명수).</p>	<p>이를 극복한 자연의 힘, 그리고 주민들의 모습까지 태안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카메라에 담아냈고, 천수만의 너른 갯벌과 간척지를 소개해 철새들을 넉넉하게 품어주는 땅으로 다양한 식생과 이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이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원산도와 외연도 등 크고 작은 50여개의 섬들은 희귀 동식물과 자체 생태계를 소개하였다. 충남 서해안의 현재 모습을 통해 아직 살아 숨 쉬는 서해안의 참모습을 들여다보았다.</p> <p>제2부<천리 비단내 금강(錦江)>에서는 발원지인 뜬봉샘에서 금강 하구까지 약 400km, 말 그대로 1,000리에 이르는 금강을 따라 취재하였다.</p> <p>금강의 발원지에서 바다와 만나는 하구까지 금강 천리 길에 놓인 사람과 자연, 그리고 생태를 만나보았다. 장기적 취재로 영상에도 꼼꼼이 신경을 썼다. 좋은 평을 해주어 감사드린다.</p> <p>다큐멘터리 방영 전에 이미 <토크 앤 조이> 제작진과 사전에 진행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기획하였다. 그 때 출연했던 우리지역 출신 탤런트를 프로그램의 안내자 역할을 하게끔 하였다.</p>		
교양	<p>시사플러스(11월14일) “농촌마을 위협하는 폐기물매립장”을 모니터하였다.</p> <p>산업화에 의한 폐기물 생성은 현대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는바 매립지역의 청정성이 파괴되고 오염되어 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것을 계기로 마을 의견이 분분해져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이 더 커다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도시와 다르게 인구수가 적고 마을 이장이 있는 작은 지역사회에 큰 분열을 가져오게 되어 사회적으로 적잖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같이 다루고 있다. 충남 예산, 부여, 청양 농촌마을에 들어서려는 폐기물 매립장의 문제를 각각 지역별로 문제를 다루고</p>	<p><충남의 산업 폐기물> 문제는 NIMBY현상의 피해를 충남지역이 떠안게 되는 충남의 미래에 대한 아이템이다. 현재 충남에서 추진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충남지역의 쓰레기를 수용하는 것이 아닌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서울 경기 지역의 쓰레기가 충남으로 밀려오는 현재 상황에 대한 논제이다.</p> <p>이러한 상황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제한된 시간에 보다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에 있어서의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기관과의 관계와 정부-민간회사의 재정적인 관계까지 간략한 멘트와 설명을 통해 시도하다보니, 다루는 분량이 적지 않았다.</p>	○	

있었다.
청양은 석면광산이 있는 지역이라 법적으로 아직 진행된 건이 아니라서 해결의 골자도 추후에 별도로 다루어주었으면 한다.

폐기물 매립주최사업주 측이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게 접근이 쉬운 방식으로 서서히 들어오지만 나중에 사업계획서를 보면 거대한 산업폐기물 매립장 입지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주민들이 뒤늦게 경각심을 가지고 반대투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 혐오시설이 입지하는 대부분의 양상이다. 매립주최사업주 측은 시설업체 또는 시설물관리업체인 에코에이스라는 회사와 협약체결하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인근동네 주민들이 극렬한 반대 또는 보상 요구에 지자체나 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뚜렷한 약속이나 오염방지 대책도 없이 추진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립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면서 집단민원을 방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제시하는 방송이 되어 좋게 평가한다.

에어동태의 매립방법도 문제이다. 산업폐기물 매립지가 들어선 충북 제천의 에어동은 현재 차수막이 찢어져서 오폐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이를 복구 또는 이전하는데 적게는 190억에서 900억까지 들므로 민간업체로써는 손도 써보지 못하고 환경오염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립장을 민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관리 상태를 감시, 감독, 현장 확인하여 매립장의 차수막이 찢어져 오염된 유출수가 배출되어 인근 지역의 농토오염과 식수오염은 물론 악취 등으로 주민이 고통을 받지 않을 완벽한 사업계획 수립과 민원을 해결하는 행정력이 우선되어야 하고 피해 초기에 문제점들을 지역주민들과 공동으로 헤쳐 나가야 할 문제이다.

옥의 티로는 주진행자 임세혁 아나운서는 자연스럽게 진행하였으나 보조진행자 김학철PD는 눈을 어디다 둘 줄 몰라 대본과 측면, 정면을 자주 번갈아가며 본다든지 긴장된 모습 등이 산만하게 보여 안타까웠다(한찬희).

현재까지는 문제가 발생 하지는 않았지만, 근 미래(10년 안쪽) 문제발생이 명확해 보이는 사안이라서 제작진의 보다 신중하고 공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폐기물 문제>는 ‘공공성의 범주를 어떻게 적용해야하는가?’ 라는 주제와도 맞닿아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 공공성을 이야기한다면 어느 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서건 문제가 없겠지만, 각 지자체별로 들여다본다면, 우리 지역의 쓰레기가 아닌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가 우리 지역에 들어온다는 것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당혹스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윤을 최종목표로 하는 민간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처리에 운반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지역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인과관계이다. 그래서 수도권의 쓰레기들이 충북-충남으로 몰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내밀하게 살펴보면, 이 문제는 경제 이슈가 되기도 한다.

<폐기물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룰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스튜디오에 출연하는 제작PD의 표정과 전달력 등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것이라고 보지만 사전에 더욱 준비하여 시청자들에게 자연스런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겠다.

<p>교양</p>	<p>2014년 11월 15일. 충청남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MBC가 공동주최하고, 삼성디스플레이, 충남자원봉사센터, 대전MBC가 공동주관하는 '2014 김장나눔 대축제'가 충남은 아산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 대전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는데 이날 대전MBC는 이원 생방송으로 150분간 생중계하였다. 그리고 이날 행사는 4천여명의 자원봉사자, 60여개의 착한기업, 74톤이나 되는 김장, 2만6천포기의 김치 등 중부권 최대의 김장나눔 행사였으며, 특히 지역의 농가와 계약 재배한 농산품 사용으로 지역 농민의 소득은 증대시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엄선된 먹거리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본다. 또한 이날 150분간의 방송분을 살펴보면 사회자의 행사 취지 설명, 전년도 김장나눔 대축제 소개, 그리고 각 김장나눔 봉사자들의 현장모습을 전하는 것으로 방송을 편성하여 대부분을 김장나눔 봉사자들의 현장모습과 목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냈다. 많은 자원봉사자, 기업, 단체가 다 같이 모여서 정을 나누는 모습, 소외된 이웃들에게 직접 담근 김장김치를 나누어 드리고자 김장을 담그는 모습에 시청자들도 함께 하고픈 마음을 불러 일으켰으며 그러한 행사에 대전MBC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공영방송으로서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고 본다.</p> <p>다만 아쉬웠다면 150분이라는 긴 방송 중간 중간에 김장나눔 대축제 행사를 위해 사전에 있었을 행사 담당자간의 준비과정, 2만6천 포기의 배추를 수확하고 씻고 소금에 절이는 동안 많은 고생을 했을 봉사자들의 모습들도 사전에 영상으로 제작하여 보내 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었다.</p> <p>그리고 어느 해부터인가 전국적으로 김장나눔 행사가 곳곳에서 각 단체나 자원봉사자별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한 지역의 각 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이 각각이 아닌 다 함께 하나가 되어 김장나눔 행사를 추진하는 곳은 많지가 않다. 세종시 경우만 살펴봐도 각 단체나 자원봉사자별로 김장나눔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 어려운 이웃들에게 김장김치가 중복으로 지급되기도 하고 정작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되고 있어 김장나눔 행사의 통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p> <p>내년에는 대전MBC에서 '대한민국 김장나눔 대축제'가 대전과 충남만이 아닌 세종</p>	<p>올해 2회를 맞은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김장>이라는 아템을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축제>로 승화시킨 행사- 프로그램이다.</p> <p>작년에는 대전, 한 지역에서만 방송되었지만, 올해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대전과 충남 두지역으로 나누어 행사와 방송을 진행하였고, 방송분량도 100분에서 175분으로 확대하였으며, 방송에 동원된 장비도 타지역(충천MBC)의 중계차까지 임차하여, 대전MBC 최초의 2원 중계차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p> <p>최초의 행사와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새로운 시도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다. 2대의 중계차를 이용한 방송진행에서 이를 연결하는 KT인터넷 망의 부실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열기와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p> <p>2015년에도 이 행사와 프로그램이 더욱 확대되어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행사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그리고, 생방송 외에도, 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배달된 후 나누는 기쁨을 누린 노인들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30분 세미 다큐멘터리 <특집 사랑의 선물, 2014 대한민국 김장나눔 대축제- 5일간의 기록>을 후속으로 편성하여 방송하였다.</p> <p>세부적인 진행과정의 미숙은 방송 후 스텝미팅 등을 통해서 보다 보완하도록 하겠다.</p>	<p>○</p>	
-----------	--	--	----------	--

	<p>까지 아우르는 중부권최대의 김장나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장백기).</p>				
<p>보도</p>	<p>시사광장(11월16일) “KTX공주역 개통, 지역발전 촉진될까?”</p> <p>2015. 3월 KTX공주역 개통을 앞두고 100년 만에 호남고속철도시대를 앞두고 새로운 철도시대를 맞아 공주지역 활성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문제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점 또한 인프라 구축의 문제점과 충청지역의 활성화 방향까지 다루고 있는 점이 좋았다.</p> <p>공주와 주변 상대적으로 낙후된 논산, 아산, 청양, 계룡시 등 5개 지역을 공주는 백제문화관광도시로, 청양은 자연 관광도시, 계룡시의 군사도시로서 권역 내에서 서로 상생하여야 한다는 방송의 포인트를 잘 부각시켰다고 본다.</p> <p>“KTX공주역 개통, 지역발전 촉진될까?” 이 문제를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인데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의 반대의견 제시는 좋으나 논점에서 벗어나는 발언과 말이 빠르고 논리적이지 못한 멘트 등 패널의 섭외가 아쉬웠다.</p> <p>◦ 2006년 호남고속도로 개설 당시 공주역 사용수요가 연간 73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에 코레일 측은 700명 정도만으로 예상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될 것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철도공사 대변인은 접근 시간, 대기시간 등의 문제 때문에 gap이 생기는 것이라 설명하고 이를 국가가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차량 빈도수, 금산 인삼, 한산 모시 등의 지역특산물 활성화와 볼거리, 먹을거리, 홍보영상 등 매체를 총동원하여 주변 교통망 구축과 함께 잘 수립된 역세권 개발 계획수립으로 KTX공주역 개통이 보다 지역주민들에게 환대 받길 기대해본다(한찬희).</p>	<p>ktx 공주역사는 위치문제부터 지역사회에서 큰 논란이었다. 이는 오송역 건설부터 이어진 정치적 결정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정부결정에 대해 인정하고, 현재의 ktx 공주역이 내년 3월부터 개통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어떤 효과가 일어날지 집중적으로 토론하고자 했다. 이 공주역을 통해 낙후지역인 충남 남부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지, 그런 시너지효과를 내기위해 어떤 과제와 보완대책이 필요한지에 토론의 무게를 실었다. 토론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과정에서 논점을 벗어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사회자의 역량이 더욱 발휘될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 그리고 출연패널들이 보다 정제된 발언을 통해 시청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요구하는 등 고품질 토론을 위해 노력하겠다.</p>		<p>○</p>	

<p>보도</p>	<p>지난 11월 13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5개 시험지구, 1,216개 시험장에서 실시되었다. 우리 대전과 세종·충남지역은 87개 시험장에서 4만1천여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렀다. 이제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시험결과를 놓고 자신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신중하게 선택하여야 하며, 수능 이후 남은 기간 동안에는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p> <p>하지만 매년 성적비판을 이유로 자살을 선택하는 가슴 아픈 소식들도 매스컴을 통해 전해 듣게 되고 심리적으로 해방감과 연말 분위기에 더해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 소식도 쉽게 접하게 된다.</p> <p>이에 대전MBC에서는 우리 청소년들이 일탈행위에 노출되지 않고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청소년 선도·계몽 관련 뉴스를 편성해 주었음 한다.</p> <p>한편 대전MBC에서 수능이후 수험생관련 보도뉴스를 살펴보면, 수능 소식 관련 8개 보도 (①수능 문답지 오늘 내일 도착 ②오늘 수험생 예비소집 실시 ③각 기관 수능 수험생 편의종합대책 마련 ④87개 시험장에서 수능3교시 결시율 최고 13.6% ⑤이시각 시험장 한파 절정 ⑥오늘부터 수능 가채점 진행 ⑦수능 가채점 물수능에 고3 교실 멘붕 ⑧수능후 지역대 수시 면접전형 잇따라 실시), 청소년 선도·계몽 관련 3개 보도 (⑨교육-경찰청, 청소년보호 합동 캠페인 ⑩수능 수험표 거래 성행, 범죄 악용 우려 높아 ⑪교육청, 고3대상 수능이후 프로그램 운영), 기타 1개 보도 (⑫업계 수능생 위한 할인전 수능 마케팅 돌입) 등 총 12개의 보도 뉴스를 내보냈다.</p> <p>연말연시 자칫 탈선하기 쉬운 우리 청소년들의 비행과 탈선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을 비롯해 학부모, 사회단체 등이 서로 힘을 합쳐 선도활동을 전개하는데 대전MBC가 적극 보도해 우리 청소년들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일조해 주었음 한다 (장백기).</p>	<p>연말연시 청소년들의 일탈이 없도록 관련 보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하겠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비행과 탈선 예방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도 또한 강화할 계획이다.</p>	<p>○</p>	
<p>보도</p>	<p>‘총청 100년 내일을 보다’에 대하여 대전시가 갈대밭만 무성하던 곳이었었는데 일제강점기에 경부선철도가 들어오면서 도</p>	<p>‘총청 100년 내일을 보다’가 지난 100년의 변화를 조명하는데 치중하다보니 프로그램의 제목에 걸맞지 않게 향후</p>	<p>○</p>	

	<p>시화되었다는 사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구도심지가 일제시대 때 일제에 의해 건축된 건축물들이 곳곳에 산재한다는 사실,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구역 체계가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 대전의 급부상으로 인하여 쇠락하게 된 강경, 공주의 모습, 내포의 역사, 충청이 융통성 없는 양반들만이 살던 곳이 아니라 다양성을 포용하던 곳이었다는 사실 등 충청의 역사를 새롭게 알게 된 계기였다고 할 것이다.</p> <p>양적인 팽창에만 관심을 두다보니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들이 있고, 향후 발전이 그 세대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점을 제시하였다.</p> <p>다만, 100년을 맞은 충청의 도시들이 향후 100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어 충청의 내일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않은 점이 아쉽게 느껴졌다 또한 충청의 도시에 세종시만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종시만 부각시킨 점이 아쉬웠다(성정모).</p>	<p>10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한다. 다만 100년 전 일제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이후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건설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크게 부각된 것이고, 지역의 미래 비전 또한 세종시의 성공적 건설과 국가 중심축으로의 성장에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담겨 있다고 보아주시기 바란다.</p>			
교양	‘다큐멘터리 충청’에 대하여 ‘천리 비단내 금강’은 충청의 젓줄인 금강이 얼마나 아름다운 강인가를 보여주는 한	프로그램의 당초 기획의도가 금강을 따라서 살아가는 생명과 사람이었던 만큼, 맥락이 다소 연결되지 않을 수 있었다.	○		

	<p>편의 서정시 같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금강변에 있는 마을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었다.</p> <p>다만, 위 프로그램을 진행함에 있어 금강을 수원지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나가는 코스를 따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곳곳 아름다운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곳을 나열하는 것인지, 큰 줄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는 점이 아쉬웠다(성정모).</p>	<p>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p>		
<p>교양</p>	<p>지난 11월15일 아산 이순신 종합 운동장과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던 특별 2원 생방송 '2014 사회 공헌 프로젝트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는 6000여명의 자원 봉사자들과 기업, 학교, 직능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끝났다.</p> <p>그리고 지난해 7월출범한 대전mbc 자회사 농업회사법인 FNC (Farm Networking Corporation)의 보다 발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향후 FNC의 다양한 사업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크다.</p> <p>지난해 보다 규모면에서도 대폭 늘어난 면도 있지만 150분 동안 아산과 대전을 번갈아 가며 진행된 2원 생방송은 시청자들에게 '나눔은 희망이다.'라는 구호에 걸맞게 좋은 모습으로 다가 갔을 것으로 보인다.</p> <p>참여자들에겐 내가 만든 김치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된다는 뿌듯함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100% 로컬 푸드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어서 좋았다. 전국 최대의 행사에 걸맞게 많은 방송 스태프들 또한 자연스럽게 유기적으로 움직여 주어서 2시간 30분이라는 긴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대전mbc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p> <p>이왕이면 이런 의미 있는 생방송 프로그램에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될 수 있다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p> <p>아산과 대전 두 지역에서 MC들이 서로 상대방 현장을 부를 때 'oo 중계차 나와주세요'라고 하는 멘트는 너무 기계적인 냄새가 난다. 중계차의 모습이 아닌 무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어디 보다 좋은 호칭이 없을까(김학선).</p>	<p>올해 2회를 맞은 <대한민국 김장 나눔 대축제>는 우리민족 고유의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는 <김장>이라는 아템을 봉사와 사랑을 실천하는 <축제>로 승화시킨 행사- 프로그램이다.</p> <p>작년에는 대전, 한 지역에서만 방송되었지만, 올해는 그 범위를 확대해서, 대전과 충남 두지역으로 나누어 행사와 방송을 진행하였고, 방송분량도 100분에서 175분으로 확대하였으며, 방송에 동원된 장비도 타지역(춘천MBC)의 중계차까지 임차하여, 대전MBC 최초의 2원 중계차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p> <p>최초의 행사와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새로운 시도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와 아쉬움을 남기는 것이 사실이다. 2대의 중계차를 이용한 방송진행에서 이를 연결하는 KT인터넷 망의 부실문제 등이 발생하였으나,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열기와 함께 순조롭게 진행되었다.</p> <p>세부적인 진행과정의 미숙은 방송 후 스태프미팅 등을 통해서 보다 보완하도록 하겠다.</p>	<p>○</p>	

<p>보도</p>	<p>지난 8월 초부터 대전MBC 네트워크 충남에서는 천안과 내포 뉴스센터를 연결하여 충남 서북부 권과 서해안권 소식을 전하게 되면서 네트워크 충남의 다양한 모습을 대하게 돼 반갑다.</p> <p>특히 충남지역 곳곳의 사안들을 심층취재해서 전하고 있는 주재 기자들의 활약에 기대를 건다.</p> <p>천안. 내포 뉴스센터의 실내 장식이나 조명. 화면의 선명도(화질)등이 대전 뉴스센터와 별 차이가 없어서 과거와는 보다 향상된 것을 느낀다. 뉴스를 전할 때의 공간이동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지금이 그렇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화면 가득 차게 나오는 천안. 내포 뉴스센터 두 기자의 모습이다. 두 기자의 덩치가 남다른 하다.</p> <p>너무 타이트한 화면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뉴스 룸의 여건상 어쩔 수 없는가? 앵커를 한 가운데가 아닌 가장 자리로 이동 시키면 어떨 런지... 지금보다 조금만 덜 타이트한 화면이 나올 듯 싶다(김학선).</p>	<p>영상부와 조명과 카메라 등을 현지 여건에 맞도록 재배치해 우려하신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또 현재 천안과 내포 뉴스센터의 경우 별도의 분장사와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있지 않아,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p>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에서 활동중인 외국인 여성이 눈에 띈다. '이리나'라는 여성을 리포터로 투입한 것은 사회통합의 의미에서 볼 때도 좋다고 본다. 다소 어눌하게 진행은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볼 때 리포터 '이리나'라는 여성에 대한 구체적 소개가 없어 이리나에 대해 궁금하게 만든다. 이리나에 대해 프로그램 속에 잠깐이라도 소개를 곁들면 좋겠다(유덕순).</p>	<p>외국인 리포터 <이리나>는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으로 한국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모범 사례이며, 그 과정에서 방송의 역할도 컸다고 자부하고 있다. 방송에서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자만하지 않고 보다 성숙한 방송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p>	○		
<p>교양</p>	<p>생방송 아침이 좋다(11월 21일)에 고정 게스트인 기상캐스터의 멘트를 눈여겨보았다. 친구와 대화하듯 편안한 모습까지는 좋았는데 멘트 중에 “저는 술자리에서 달라집니다. 시청자와 함께 술자리를 못해 아쉽습니다.”라는 표현에 놀랐다. 나중 농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기상캐스터의 멘트라고 보기는 황당하였다.</p> <p>남녀 진행자와 리포터의 대화 중 남MC가 “젊었을 때 낭만을 즐겼다”라고 표현하여 리포터가 “여자를 많이 만났네요”라고 응수했다. 다소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 코너에 맞게 품격있게 진행하길 기대해 본다(유덕순).</p>	<p>생방송 아침이 좋다는 <생방송>이라는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프로그램이다. 새벽부터 방송준비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진들의 노력이 한 번의 실수로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한번의 재치가 60분간의 방송을 활력으로 가득 채우기도 한다.</p> <p>진행자 및 출연자들의 순간적인 실수나 오류는 방송 후 제작진 회의를 통해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생방송 중의 문제는 수정이 불가하기에 방송 후 이러한 문제의 지적은 제작진에 대한 객관적인 지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실수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다.</p>	○		

교양	<p>‘다큐멘터리 총칭’을 시청하였다. 대전MBC가 다큐멘터리 제작 능력이 강하다고 알고 있다. 전체적으로 영상미가 좋다. 카메라 무빙도 항공 촬영, 지미집, 헬리캠 등 다양한 장비를 통해 영상을 잘 구성했다. 프로그램 구성면에서 볼 때는 애매모호하다. 자연다큐인지, 문화생활 혹은 역사다큐인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수미일관 전체를 꿰뚫는 그 무엇이 없어 보인다. 신(scene)과의 이동에도 어떤 근거가 없다. 그저 옴니버스식이다. 50분에 다 보여 줄려고 하다 보니 연결성이 약해 보인다.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해당지역 지도를 병기해 주었으면 좋았겠다(송인덕).</p>	<p>다큐멘터리 총칭의 당초 기획의도가 ‘충청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과 자연을 카메라에 기록한다’라는 것이었던 만큼 영상미에 공을 들여서 제작하였다. 다소간 구성 맥락이 약했다는 부분은 인정하며, 당초 기획의도가 있었던 만큼 양해 부탁드린다.</p>			○
보도	<p>저녁 8시에 리포팅 하는 기자의 멘트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모 기자의 경우 리포터 톤이 너무 떨어져 앵커의 톤과 해당기자의 톤이 너무 차이가 나 시청자 입장에서 들을 때 뉴스의 내용도 잘 들어오지 않는다. 기자의 뉴스전달력이 약해지면 뉴스 내용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유의해 주기 바란다(김형주).</p>	<p>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자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개인 컨디션 관리에 유의해 리포팅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p>			○
교양	<p>시사플러스(11월 14일)에 대해 지적을 하겠다. 이 날 내용은 ‘산업폐기물’과 관련된 것이었다. 몇 가지 간추려 보겠다. 첫째, 이 프로그램은 이해당사자 의견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다 객관화 시켜야 한다. 사안에 대해 찬성 혹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집중되어 있다. 이를테면 시민연대, 특정 공무원이 주로 인터뷰 대상자로 자주 출연하고 중립적인 인사들의 의견은 찾기 어렵다. 둘째, 시사플러스 제작이 매너리즘에 빠졌다. 인터뷰 대상자의 인터뷰 배경화면이 동일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CG도 약하다. 예를 들면 차수막 훼손사례를 보여줄 때 그래픽으로 영상을 잘 보여줄 수 있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다. 셋째 시사플러스에서 2개의 서로 다른 주제의 편성분량이 달라 시청자들에게 혼돈을 준다. 1개의 주제는 35분, 다른 주제는 5분 등으로 처리하다 보니 시간이 적게 배정된 것은 중요성이 그만큼 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게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슈의 중요성이 달리 느껴진다. 소재목으로 ‘이슈 인 이슈’ 같은 타이틀을 달아 제작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김형주).</p>	<p>시사플러스의 주제는 매주 두 편을 다루고 있다. 제작진 내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나, 방치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우려가 보이는, 혹은 억울하거나 부당하게 보이는 사례들을 메인 아이템으로 25- 30분 분량으로 제작을 하고, 작지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항들을 서브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화면구성이나 자막 등에서 보다 편안하게 시청하실 수 있는 형식으로 제작하고 있다. 메인 아이템과 서브 아이템의 배치문제는 개편 시에도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역의 시사 프로그램에서 매주 두 개의 메인 아이템 제작 보다는 하나의 아이템에 비중을 두어 다루고, 하나의 아이템을 영상위주로 편성하는 것은 현재 상태에서는 비판보다는 호평이 많은 시스템이기도 하다. 부족한 부분은 보다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 인터뷰 대상을 한쪽 의견에 편중해서 실지 않고 골고루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p>			○
보도	<p>세종시 문제를 다룰 때 대전과 세종 차원</p>	<p>세종시 건설은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p>			○

	<p>으로 보지말고 국가적 차원에서 즉 국가균형발전 시각에서 큰 그림을 놓고 다뤄야 한다. 토론 패널도 지역의 관계공무원, 지역 전공교수에 한정하지 말고 총리실 세종시 추진단장, 국토부 공무원 등 중앙정부의 시각을 살펴볼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여 진행을 해야 한다. 문제고발도 필요할 때 적절하게 할 필요도 있지만 국가대계의 큰 그림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오덕성).</p>	<p>우리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일 것이다. 정부의 국토 균형적인 발전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당초 목표했던 결과가 도출되고 있는지 등을 지역 방송사로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할 생각이다. 그 때마다 보다 큰 틀을 설정하고 중앙 정부의 패널도 참석시키도록 노력하겠다.</p>			
--	---	---	--	--	--